

익모초를 이용한 민간요법 조사 연구 - 충청남도 중심으로

이종숙, 김영완,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본부 침구경락연구그룹

A Study on Investigate Folk Remedies Using the Ikmocho(*Leonurus sibiricus* L.) - Focused on Chungcheongnamdo, Korea

Lee Jong-Suk, Kim Young-Wan, Lee Sanghun*

Acupuncture, Moxibustion, and Meridian Research Group,
Medical Research Division,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Korea

Abstract

We were investigate focusing the mountains and the sea of look into folk remedies used Ikmocho(*Leonurus sibiricus* L.) in Chungcheongnamdo. As results, there were not shown regional differences of Ikmocho (*Leonurus sibiricus* L.), but the most used as the home medicines.

Keywords: Ikmocho(Yimucao, Leonuri Herba), folk remedies, home medicines

서론

민간요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용식물로 질병을 치료했던 방법으로 다양한 약용식물들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익모초는 전국 각지에서 야생으로 사용하는 빈용 생약으로¹⁾ 키가 0.5~1.5m 이고 줄기는 4각형이며 잎은 엽병이 길며 난산원형이고 꽃이 필 때 없어진다.²⁾ 꽃은 6~9월에 피며 연한 홍자색이고 위부분의 엽액에 층층으로 달려 꿀풀과의 특징을 이룬다.³⁾ 한방에서도 익모초(Leonuri Herba)는 활혈거어약(혈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서, 월경부조, 통경, 경폐, 오로부진, 수종뇨소 등을 치료하는 데에 쓰이는 한약재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 중 산, 바다를 중심으로 익모초가 민간요법으로 어떤 방법과 병증에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Correspondence: 이상훈(Lee Sanghun). 한국한의학연구원(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el: 042-868-9461 Fax: 042-869-2734 E-mail: ezhani@kiom.re.kr

· Received 2013-09-09, accepted 2013-09-17.

본론

충청남도를 자연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계룡산 국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현장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의 시·군(공주, 논산, 청양, 태안, 서산, 보령) 21개의 마을을 조사하였다. 인터뷰 대상이 되는 정보제공자는 해당 지역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평균 연령은 79세(66-89세)였다. 인터뷰 동안에는 semi-structured 설문지를 사용하여 식물이름, 식물 지방명, 병증, 식물 사용부위, 사용방법, 투여방법, 복용량, 복용기간, 효과여부, 정보제공자(성별, 나이, 이름, 조사지역)등을 기록하였다. 조사된 민간요법 중 각 시군에서 익모초에 대한 사용현황만을 정리 분석하였다.

현장발굴조사 결과 정보제공자는 68명이었으며, 조사된 민간요법 1217건 중 익모초를 사용한 민간요법은 총 63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논산에서 22건으로 가장 많이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은 공주 11건, 태안 10건, 서산 7건, 청양 6건, 보령 2건의 순이다(Table 1).

Table 1. The Ikmocho used diseases in the provinces of Chungcheongnamdo area.

질환분류	산간지역(공주, 논산, 청양) 에서 조사된 병증	해안지역(서산, 태안, 보령) 에서 조사된 병증	문헌기록
부인과 질환	배가 차가울 때(논) 여자들 몸이 찰 때(논)	속이 냉할 때(서, 태) 여자 하혈 할 때(서) 불임(태)	△ ⁵⁾ △ ⁶⁾
소화기 질환	입맛이 없을 때(공, 논) 소화가 안 될 때(공, 청) 배가 아플 때(공, 논) 위장병 있을 때(논) 속병 있을 때(논)	입맛이 없을 때(서) 소화가 안 될 때(태) 배가 아플 때(서, 태) 위 안 좋을 때(태) 속이 안 좋을 때(태) 생목 올라올 때(보) 급체 했을 때(서, 태)	
당뇨	당뇨(논)	-	
근골격계 질환	무릎 아플 때(논) 삭신 아플 때(논)	무릎 아플 때(신경통)(보)	
비뇨기 질환	-	전립선비대증(태)	
기타	더위 먹었을 때(공, 논, 청) 하루걸이 (논) 오장이 안 좋을 때(공) 보약(공) 감기예방(공) 원기회복(공)	더위 먹었을 때(서, 태) 곽란(서) 탈진(태)	

△ 일정부분 효능 일치

익모초가 사용된 병증은 모두 32건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소화와 관련된 것(소화가 안 될 때, 체했을 때, 입맛 없을 때 등)과 부인과 질환(하혈할 때, 속이 냉할 때, 불임 등)에 관련된 병증이 많이 조사가 되었다. 익모초를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조사가 되었다. 더위 먹었을 때는 잎을 생으로 찢어 즙을 내 밤에 장독대에 올려놓고 밤이슬을 맞혀서 아침 공복에 먹었고, 속이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말린 익모초 달인 물을 먹기도 하였으며, 입맛이 없거나 속병이 있을 때는 익모초 삶은

물에 엿기름을 넣고 졸여서 조청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익모초와 다른 약용식물을 같이 혼합하여 복용하기도 하였는데, 보약(補藥)으로는 솔잎, 쑥, 익모초를 같이 넣고 술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전립선비대증에는 느릅나무 뿌리, 옥수수수염, 익모초 잎, 감초, 대추를 넣고 같이 달여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밖에 익모초를 먹을 때 금기 사항도 조사가 되었는데 익모초 즙 또는 달인 물을 마신 다음에는 ‘사카린이나 설탕을 먹으면 죽는다’는 설이 현장 조사결과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익모초가 민간요법에서는 다양한 병증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고지혈, 뇌혈류와 같은 혈관 질환, 항암, 부인과 질환에 관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Park과 Do(2007)는 익모초가 월경불순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고하였고⁵⁾, 홍 등(2001)은 익모초가 자궁을 수축시키고 자궁 내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Leonurine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⁶⁾ 또한 이 등(2006)은 익모초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서 자궁근종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⁷⁾

예전 문헌 중에도 익모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 본초학에 따르면 익모초는 활혈조경(活血調經), 이수퇴종(利水退腫)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부녀자의 월경부조 및 부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⁴⁾ 동의보감에서도 익모초는 산전이나 산후의 여러 가지 병에 쓰인다고 하였다.⁸⁾

산간과 해안지역의 비교에서도 부인과 질환,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익모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은 이용지역보다 약물의 특성에 보다 의존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 기타 병증에 관한 것은 아마도 정보제공자의 차이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익모초를 조사한 결과 자연환경에 따른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뚜렷한 차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익모초가 가정상비약처럼 다양한 병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부인과 질환에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름철 더위를 먹었을 경우와 이에 따라오는 증상들에 관한 효능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특허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향후 이와 관련한 특허 및 기술 동향 등을 보완한다면 익모초를 여름철에 즐겨 먹을 수 있는 즉 더위 예방이나 소화기질환에 관련된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기본 연구 자료로 사용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민간요법 발굴·보전 및 DB구축을 통한 지식 자원화(K13210)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1. 이성완, 김기은, 정성희, 김성건, 김도훈, 김진효, 김호경, 황완균. 익모초의 계절 및 지역별 Rutin 함량변화 연구. 약학회지. 2007;51(3):157-63.
2.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전분과회. 대한약전 제7개정. 서울:분성사. 1999:1088.
3.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완역중약대사전. 서울:도서출판 정담. 1998:4453-60.
4. 전국한의과대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영림사. 2004:463-4.
5. Park JH, Do WI. Pharmacognostical Studies on the Ig Mo Cho. Kor J Pharmacogn. 2007;38:148-51.
6. 홍성수, 황지상, 이선아, 황방연, 하광원, 제금련, 성낙선, 노재섭, 이경순. 익모초로부터 Leonurine의 분리 및 함량분석. 생약학회지. 2001;32(4):322-6.
7. 이수진, 김동철, 백승희. 익모초가 자궁근중세포의 증식억제와 Apoptosis 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6;19(3):1-12.
8. 허준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6:1829.